

소년보호관찰 집단의 이질적 문제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 검증*

한지연** · 서아현*** · 김현경**** · 오경자***** · 이주영*****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이질적 문제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질성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 신규 접수된 보호관찰 청소년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1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문제행동과 양육행동은 보호자 보고, 아동기 역경 경험과 동기체계는 청소년 자기보고로 평가되었다. 보호자가 보고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계층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규칙위반 행동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우선, 혼합문제 집단은 외현화 문제 집단에 비하여 높은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와 부모의 과잉반응 양육태도, 많은 정서적 방임 경험을 나타냈다.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해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많았고, 부모의 과잉반응과 느슨한 양육태도가 높고, 정서적 방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현화 문제 집단은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하여 부모의 과잉반응 양육태도가 높고, 부모의 약물남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와 보호자 보고라는 다양한 정보원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법체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소년보호관찰, 문제행동, 이질성, 위험요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8065).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jylee7694@dongduk.ac.kr

I. 서 론

청소년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범죄의 4.8%였던 청소년 범죄의 비율은 2016년에는 4.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범 비율은 36.9%에서 3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발전하는 전환율도 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더 이상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범죄자로 발전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와 개입이 더 중요하다. 적합한 중재와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Moffitt(1993)은 반사회적 행동이 청소년기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유형과 전생애에 걸쳐 거쳐 나타나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Mulder, Brand, Bullens과 Van Marle(2011)는 범죄 빈도, 유형, 피해정도에 의해 정의되는 비행의 심각도에 따라 상위 5%를 나머지와는 다른 청소년 범죄자로 간주하여 상위 5%만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Burt, Donnellan, McGue과 Iacono(2011)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공격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 집단과 비 공격적인 규칙위반 행동만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봉선(2013)이 청소년 범죄자 집단이 성별에 따라 범죄 및 재범 유형, 재범 예측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최효주와 박기환(2012)은 MMPI-A 프로파일 에 따라 여자 청소년 범죄자 집단은 ‘호소형’, ‘만성화된 비행’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남자 청소년 범죄자 집단은 위의 두 유형에 더하여 ‘방어형’과 ‘신체화형’ 4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수정과 조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비행촉발요인에 따라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자

집단의 하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범죄자 집단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년범죄 집단의 이질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특성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지능, 신경심리학적 속성, 성격적 특징, 약물남용, 정신질환의 유무, 가족관계,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일탈또래의 영향 등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다루고 있으나(Barnow et al., 2005; Beck & Shaw, 2005; Burt, 2012; Chitsabesan et al., 2006; Grisso, 2008; Hawkins et al., 2000; Sukhodolsky & Ruchkin, 2006; Hipwell & Loeber, 2006; Takeda, 2000; Townsend et al., 2010; Ttofi et al., 2016; 홍봉선, 2013),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속성인 행동동기체계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으로써의 아동기 역경과 부모양육태도에 주목하였다. 개인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의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을 두루 살펴보는 데, 특히 내적 속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변인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기반을 갖는 동기체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환경적 변인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 요인, 특히 부모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갖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학대나 방임을 포함하는 아동기의 역경 전반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부족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행동동기체계는 비행이나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행동동기체계는 본인에게 보상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ural Approach System; BAS)와 좌절이나 처벌을 예방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행동억제체계(Behavioural Inhibition System; BIS)로 구성되어 있다(Gray, 1987).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행 청소년들과 범죄 집단은 BAS가 높아 자신에게 보상이 되는 단서들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며, 낮은 BIS 성향으로 인해 처벌단서에 반응하지 않고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lconi & Pagani, 2014; Brunelle, Douglas, Pihl & Stewart, 2009; Carlson, Pritchard & Dominelli, 2013).

BAS와 BIS가 개인이 타고난 내적 속성이라면 청소년들이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적 변인들 중에서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아동기 역경(adversity)이다. 역경에는 양육자에 의한 학대와 방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 정신질환문제, 범죄력,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이 포함된다. Krischer와 Sevecke(2008)의 연구와 Lang, Klinteberg와 Alm(2002)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기에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Hanson, Hariri와 Williamson(2015)은 방임적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불안,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기 쉽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ears와 Fisher(2005)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성적 학대에 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나 자녀에게 과도한 분노를 표현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비행문제에 연루되기 쉬우며(Grogan-Kaylor, 2005), 감정조절이나 왜곡된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cKinney, Donnelly & Renk, 2008). 반대로 너무 관대하고 느슨한 양육태도 역시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 충동성,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다(Nijhof & Engels, 2007). 국내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나 지나치게 관대한 양육태도는 비행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강민주, 2013; 김현욱 & 김정민,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떠한 패턴의 이질적 문제행동을 보이는지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그러한 이질적 패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 집단의 이해를 돕고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자의 보고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문제행동 및 그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로 2016년 7월 이 후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간 서울보호관찰소에 신규 접수된 대상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171명 중 남자는 133명(77.8%), 여자는 38명(22.2%)이었고, 연령은 13~20세($M=16.74$, $SD=1.42$)였으며,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461일(180~897일, $SD=185.726$),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는 평균 1.79번(1~7번, $SD=1.17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보호자가 보고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하(1.2%), 중하(4.1%), 중(28.7%), 중상(27.5%), 상(28.1%)이었다. 연구대상의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징 ($n=171$)

	<i>n</i> (%)
성별	
남	133(77.8%)
여	38(22.2%)
사회경제적 수준(보호자 보고)	
하	2(1.2)
중하	7(4.1%)
중	49(28.7%)
중상	47(27.5%)
상	48(28.1%)
보호관찰 기간	
100~300일	15(8.8%)
300~500일	104(60.8)
500일 이상	52(30.4%)
이전의 보호관찰 횟수	
1번	97(56.7%)
2번	40(23.4%)
3번 이상	34(19.9%)

2. 측정도구

1)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

연구대상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CBCL 6-18은 2001년에 개정된 미국판 CBCL 6-18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이다(오경자, 김영아, 2015). CBCL 6-18은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분되며, 문제행동척도는 총 120문항으로 청소년의 부모가 지난 6개월 내의 아동·청소년의 행동을 기준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행동척도에는 8개의 증후군 척도와 기타문제 척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척도 내의 8개의 증후군 소척도의 T점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한국판 CBCL 6-18의 표준화 연구에서 .62-.95였으며(김민영, 이진, 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2015), 본 연구에서는 .66-.89였다.

2) BAS/BIS 척도(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scales: The BAS/BIS scales)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에 기초가 되는 동기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Carver와 White (1994)가 제작한 BAS/BIS 척도를 김교현, 김원식(2001)이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AS/BIS 척도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or approach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의 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20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BAS는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추동(Drive)’, ‘재미추구(Fun Seeking)’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BIS는 단일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S 하위척도의 점수 대신 BAS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BAS가 .92, BIS가 .71이었다.

3) 양육행동 척도(Modified Parenting Scale)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Prinzie, Onghena와 Hellinckx(2007)가 개발한 Modified Parenting Scale을 본 연구진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번안 과정은 본 연구진이 일차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하여 번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척도는 보호자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위 척도로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 ‘느슨함(laxness)’과 자녀에게 분노나 짜증을 나타냄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강압적인 훈육을 하는 ‘과잉반응(overreactivity)’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느슨함이 .81, 과잉반응이 .87이었다.

4) 아동기 역경 경험 척도(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cale: ACE)

청소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동기 역경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Dube et al., 2002, 2004)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아동기 역경 경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이주영 등, 2017). 이 척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역경 경험을 학대(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정서적, 신체적), 알코올·마약·범죄·정신질환 문제를 가졌던 가족구성원과 살았던 경험, 부모의 별거나 이혼, 어머니(혹은 의붓어머니)의 폭력성 등의 10가지 하위항목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이 ‘예’, ‘아니오’ 중 하나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10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승인번호: P01-201606-22-003) 2016년 7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간 서울보호관찰소에 서 수집된 자료로 진행되었다. 연구보조원들이 연구기간 동안 서울보호관찰소의 상담

실에 상주하며 신규 접수된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은 모두 완료한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이주영 등(2017)의 연구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해 CBCL 6-18의 문제행동 증후군 소척도 8개의 T점수(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 위반, 공격행동)를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여 비슷한 패턴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ACE, BAS/BIS, 양육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과 t검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SPSS 22.0를 활용하였으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Mplus 7.4(Muthén & Muthén, 1998-201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CBCL 6-18의 위축/우울($t = -2.56, p < .05$), 사고문제($t = -2.37, p < .05$), 주의집중 문제($t = -2.49, p < .05$) 소척도 및 아동기 역경 경험 척도의 정서적 방임($t = -2.37, p < .05$)과 역경 총점($t = -2.42, p < .05$)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른 변인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측정변인	하위변인	남자($n=133$)	여자($n=38$)	t
		$M(SD)$	$M(SD)$	
문제행동	불안/우울	55.65(7.22)	58.63(9.37)	-1.81
	위축/우울	54.80(6.75)	58.74(8.78)	-2.56*
	신체증상	55.20(7.26)	56.26(8.20)	-.78
	사회적 미성숙	56.48(7.99)	59.16(9.74)	-1.55
	사고문제	55.88(6.78)	59.42(8.47)	-2.37*
	주의집중문제	58.71 (7.88)	62.50(9.46)	-2.49*
	규칙위반행동	66.76(8.91)	69.71(8.77)	-1.81
	공격행동	58.39(8.43)	60.13(9.21)	-1.10
동기체계	BAS	2.48(.65)	2.36(.57)	1.04
	BIS	2.51(.52)	2.62(.59)	-1.12
양육행동	느슨함	3.48(1.03)	3.79(.99)	-1.64
	과잉반응	3.53(1.22)	3.65(1.27)	-.50
아동기 역경 경험	정서적 학대	.18(.39)	.34(.48)	-1.87
	신체적 학대	.21(.41)	.34(.48)	-1.59
	성적 학대	.02(.15)	.08(.27)	-1.21
	정서적 방임	.12(.33)	.32(.47)	-2.37*
	신체적 방임	.04(.19)	.03(.16)	.35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문제 유무	.45(.50)	.61(.50)	-1.69
	어머니의 폭력성	.07(.25)	.05(.23)	.35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마약문제 유무	.05(.23)	.11(.31)	-.96
	부모의 별거나 이혼	.08(.28)	.11(.31)	-.40
	가족구성원의 범죄력	.03(.17)	.08(.27)	-1.03
	아동기 역경 경험 총점	1.26	2.05	-2.42*

* $p < .05$

2. 잠재 프로파일 분석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 양상의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문제행동 패턴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의 수가 1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AIC, BIC, SSABIC), 통계적 유의도 검증(LRT, BLRT),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LMR의 p값 지수가 유의한 2계층과 3계층 모형 중 Nylund, Asparouhov와 Muthen(2007)의 연구에 따라 적합도 지수가 더 낮은 3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세 계층의 구성 비율을 보았을 때, 전체 구성원 중 5%미만의 구성원이 한 집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기준에 대해서도(Hipp & Bauer, 2006; Merz & Roesch, 2011) 제일 작은 비율의 집단이 전체 구성원의 15%이상으로 나타나 3개의 계층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각 집단의 문제행동 특성을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을 살펴보면, 규칙위반 소척도만이 T점수 6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 집단은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소척도 60T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집단은 모든 소척도가 60T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소척도의 점수가 70T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을 ‘규칙위반 행동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잠재집단 수	Log-likelihood	AIC	BIC	SSABIC	Entropy	LMR	BLRT(p)
1개	-4786.466	9604.931	9655.198	9604.535	—	—	—
2개	-4426.947	8903.895	8982.436	8903.276	0.973	703.827***	.0000
3개	-4304.569	8677.138	8783.955	8676.296	0.936	239.579*	.0000
4개	-4263.023	8612.047	8747.138	8610.982	0.934	81.334	.0000
5개	-4228.246	8560.493	8723.859	8559.205	0.936	68.083	.0000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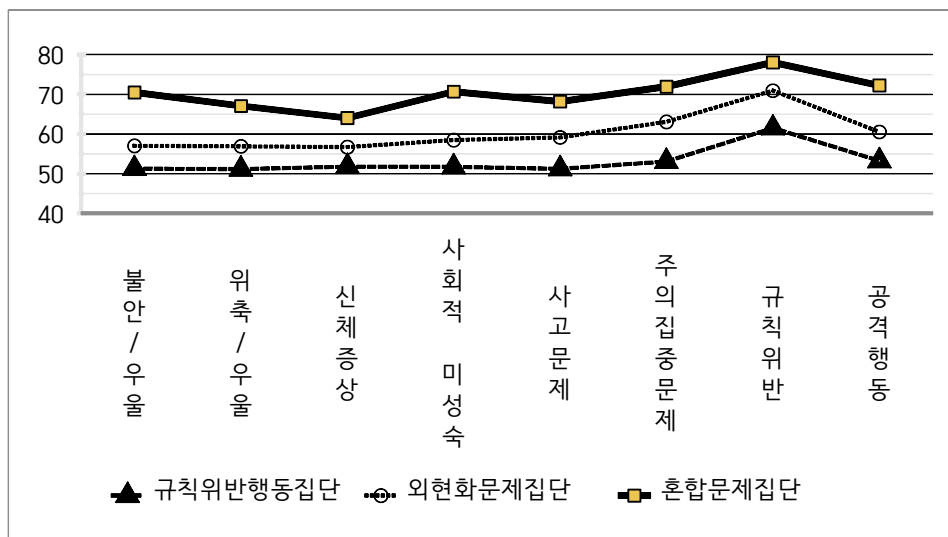


그림 1. 3계층의 문제행동 프로파일

표 4

3계층의 문제행동 T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문제	규칙 위반	공격 행동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class 1	규칙 위반	n=84 (49.12%)	51.26	51.14	51.77	51.71	51.21	53.07	61.49	53.23
	행동 집단	남자 71 (84.5%)	(2.570)	(2.390)	(3.164)	(3.036)	(2.499)	(3.368)	(7.491)	(4.126)
		여자 13 (15.5%)								
class 2	외현화	n=60 (35.09%)	57.02	56.88	56.70	58.47	59.13	63.07	70.93	60.50
	문제 집단	남자 45 (75.0%)	(5.369)	(5.096)	(6.733)	(6.133)	(5.077)	(4.733)	(4.998)	(6.135)
		여자 15 (25.0%)								
class 3	혼합	n=27 (15.79%)	70.48	67.07	64.00	70.67	68.15	71.93	78.04	72.22
	문제 집단	남자 17 (63.0%)	(4.636)	(8.775)	(10.314)	(7.942)	(4.959)	(6.955)	(5.244)	(7.138)
		여자 10 (37.0%)								

3.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동기체계, 부모양육행동, 아동기 역경 경험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이질적 문제행동 집단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기준 집단을 바꿔가며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혼합문제 집단’을 기준으로 ‘외현화 문제 집단’과 ‘규칙위반 행동 집단’간의 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 집단’을 기준으로 ‘규칙위반 행동 집단’과의 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혼합문제 집단과 외현화 문제 집단간의 차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BIS($Exp(\beta)=.41$, $p<.05$), 부모의 과잉반응($Exp(\beta)=.63$, $p<.05$), 정서적 방임($Exp(\beta)=.31$, $p<.05$)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위반 행동 집단과의 차이는 성별($Exp(\beta)=3.21$, $p<.05$), 부모의 느슨함($Exp(\beta)=.60$, $p<.05$)과 과잉반응($Exp(\beta)=.43$, $p<.001$), 정서적 방임($Exp(\beta)=.21$, $p<.01$)이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청소년의 행동억제체계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잉반응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정서적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현화 문제 집단보다는 혼합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의 성별이 여자일수록 부모의 느슨함과 과잉반응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정서적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해 혼합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외현화 문제 집단과 규칙위반 행동 집단과의 차이는 부모의 과잉반응($Exp(\beta)=1.49$, $p<.05$)과 부모의 약물남용($Exp(\beta)=5.45$, $p<.05$)이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과잉반응과 약물남용이 높을수록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각 예측변인에 대한 3개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6 제시하였다. 부모의 과잉반응($F=10.777$, $p<.001$)과 정서적 방임($F=5.345$, $p<.01$)에서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혼합문제 집단이 두 변인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혼합문제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과잉반응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정서적 방임을 경험하였다.

표 5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혼합문제집단 VS 외현화문제집단					혼합문제집단 VS 규칙위반행동집단					외현화문제집단 VS 규칙위반행동집단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성별	1.77	.50	1.30	.254	.67-4.68	3.21	.50	5.45	.020*	1.21-8.56	.55	.42	2.00	.158	.24-1.26
BAS	1.53	.37	1.31	.252	.74-3.16	1.35	.35	.73	.393	.68-2.68	1.13	.27	.21	.648	.67-1.93
BIS	.41	.45	3.88	.049*	.17-1.00	.63	.42	1.19	.275	.28-1.44	.65	.33	1.71	.191	.34-1.24
느슨함	.74	.24	1.48	.224	.46-1.20	.60	.24	4.56	.033*	.38-.96	1.23	.18	1.41	.235	.87-1.74
과잉반응	.63	.20	4.07	.024*	.43-.94	.43	.21	16.11	.000***	.28-.65	1.49	.16	6.02	.014*	1.08-2.04
정서적 학대	.74	.52	.34	.561	.27-2.05	.52	.51	1.61	.204	.19-1.42	1.41	.42	.68	.411	.62-3.20
신체적 학대	.62	.51	.87	.352	.23-1.69	.52	.49	1.83	.176	.20-1.35	1.21	.41	.21	.645	.54-2.70
성적 학대	1.39	1.18	.08	.779	.14-14.04	.64	1.25	.13	.722	.06-7.37	2.17	.93	.70	.405	.35-13.41
정서적 방임	.31	.54	4.84	.028*	.11-.88	.21	.53	8.77	.003**	.07-.59	1.48	.51	.60	.438	.55-3.99
신체적 방임	.91	1.25	.01	.941	.08-10.52	.98	1.18	.00	.983	.10-9.78	.94	.93	.01	.943	.15-5.78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문제 유무	.77	.47	.30	.582	.31-1.93	.68	.45	.78	.379	.28-1.62	1.15	.34	.16	.692	.59-2.24

	혼합문제집단 VS 외현화문제집단					혼합문제집단 VS 규칙위반행동집단					외현화문제집단 VS 규칙위반행동집단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Exp(β)	S.E.	Wald	P Value	95% CI for Exp(β)
어머니의 폭력성	.43	.85	.99	.320	.08-2.28	.51	.77	.76	.384	.11-2.31	.84	.75	.06	.811	.19-3.64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마약문제 유무	1.68	.84	.39	.535	.33-8.69	.31	1.03	1.31	.252	.04-2.31	5.45	.82	4.27	.039*	1.09-27.26
부모의 별거나 이혼	.41	.68	1.74	.187	.11-1.55	.28	.68	3.50	.062	.08-1.06	1.44	.66	.31	.576	.40-5.23
가족구성원의 범죄력 유무	1.89	1.14	.31	.577	.20-17.77	.64	1.25	.13	.722	.06-7.37	2.95	.88	1.50	.221	.52-16.64
아동기 역경 경험 총점	.86	.13	1.48	.224	.67-1.10	.74	.13	5.40	.020*	.58-.96	1.16	.11	1.70	.192	.93-1.4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집단에 따른 주요 예측변인들의 차이

		규칙위반 행동 집단(a)	외현화 문제 집단(b)	혼합문제 집단(c)	<i>F</i>	<i>Scheffe</i>
BAS	M (SD)	2.45 (.64)	2.50 (.67)	2.33 (.55)	.655	
BIS	M (SD)	2.56 (.47)	2.44 (.53)	2.69 (.71)	2.122	
느슨함	M (SD)	3.40 (1.00)	3.61 (.94)	3.91 (1.23)	2.529	
과잉반응	M (SD)	3.20 (1.03)	3.71 (1.23)	4.42 (1.41)	10.777***	c>b>a
정서적 학대	M (SD)	.18 (.39)	.24 (.43)	.30 (.47)	.878	
신체적 학대	M (SD)	.20 (.41)	.24 (.43)	.33 (.48)	.925	
성적 학대	M (SD)	.02 (.15)	.05 (.22)	.04 (.19)	.357	
정서적 방임	M (SD)	.11 (.31)	.15 (.36)	.37 (.49)	5.345**	c>a
신체적 방임	M (SD)	.04 (.19)	.03 (.18)	.04 (.19)	.004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문제 유무	M (SD)	.46 (.50)	.49 (.50)	.56 (.51)	.392	
어머니의 폭력성	M (SD)	.06 (.24)	.05 (.22)	.11 (.32)	.578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마약문제 유무	M (SD)	.02 (.15)	.12 (.33)	.07 (.27)	2.587	
부모의 별거나 이혼	M (SD)	.06 (.24)	.08 (.28)	.19 (.40)	1.987	
가족구성원의 범죄력 유무	M (SD)	.02 (.15)	.07 (.25)	.04 (.19)	.830	
이동기 역경 경험 총점	M (SD)	1.18 (1.41)	1.53 (1.90)	2.04 (1.60)	2.963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패턴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위험요인들이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년보호관찰 집단은 문제행동의 패턴에 따라 규칙위반 행동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 BAS/BIS,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기 역경 경험의 집단 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 패턴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규칙위반 소척도에서만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규칙위반 행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 유형을 알아내고자 시도했던 초기 연구들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형과 공격적이지는 않으나 청소년기에 지켜야 하는 규범들을 어기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후속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분류가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어왔다(Burt, Donnellan, McGue & Iacono, 2011; Moffitt, 2003; Tackett, Krueger, Iacono & McGue, 2005). 본 연구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행동 집단은 청소년기에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의 수준이 경미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규칙위반 행동에 더하여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소척도 점수가 높은 집단으로써 ‘외현화 문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비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 집단과 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 집단은 유전적(Burt, 2009; Lahey, Hart, Pliszka, Applegate & McBurnett, 1993) 및 환경적(Burt, 2012; 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Moffitt, 1993) 위험요인이 다르고, 발달 시기와 궤도도 다르며(Burt & Klump, 2009; Burt & Neiderhiser, 2009), 성인기에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Stanger, Achenbach & Verhulst, 1997)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공격행동 점수가 높은 비행 청소년 집단은 규칙위반만 하는 집단에 비하여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더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 시간이 흘러도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비공격적인 집단은 환

경적인 영향, 특히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청소년기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t, 2012; Barnow et al., 2005; Moffitt, 1993).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격적인 소년범죄 집단과 비공격적인 소년범죄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가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집단은 CBCL의 모든 소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혼합문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의 상당수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Chitsabesan et al., 2006; Sukhodolsky & Ruchkin, 2006; Townsend et al., 2010), 이러한 내재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개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tsabesan et al., 2006). 내재화 문제를 함께 보이는 비행 청소년들은 외부 정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Ryan & Redding, 2004), 내재된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쉽게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Grisso, 2008; Takeda, 2000). 또한, 내재화 문제가 동반되지 않은 비행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과 학교, 다양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Rosenblatt, Rosenblatt & Biggs, 2000),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자해, 더 나아가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Grisso, 2008; Monahan, Goldweber & Cauffman, 2011) 이들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혼합문제 집단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이외의 다른 문제행동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처우를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혼합문제 집단과 외현화 문제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행동억제체계(BIS), 부모의 과잉반응, 정서적 방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를 주로 보이는 소년범죄자들이 내재화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행 집단이나 범죄 집단은 BAS가 높고 BIS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동반된 혼합문제 집단의 경우 오히려 높은 수준의 BIS를 보고하여 범죄 집단이 모두 BAS가 높고 BIS가 낮은 집단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AS/BIS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BAS가 높은 경우 보상에 과잉반응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일화

에 취약하며,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AS와 BIS가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 보상과 처벌 모두에 과잉반응하며,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상태와 일화 모두에 높은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yer, Johnson & Winters, 2001). 즉, 혼합문제 집단의 경우 잠재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행동이 활성화되지만 동시에 처벌에도 매우 민감한 집단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충동적인 대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계획할 때는 이들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과잉반응은 권위주의적이거나 강압적인 훈육을 함과 동시에 과도한 분노나 짜증을 나타내는 양육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McKinney, Donnelly와 Renk(2008)의 연구에서는 강압적인 양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은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 조절에도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과잉반응적인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인지왜곡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범죄 청소년들이 외현화 문제는 물론 내재화 문제를 함께 발달시키도록 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도 혼합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또래관계 문제, 공격적 성향, 빈번한 분노, 낮은 자아통제, 내재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Hildyard와 Wolfe(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 Pears와 Fish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방임적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시각적 처리, 기억력, 집행기능, 언어 등의 발달적 기능이 지체될 수 있다. 정서적 방임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어렵다. 따라서 혼합문제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정 내에서 양질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정서적 방임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혼합문제 집단과 규칙위반 행동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성별, 부모의 과잉반응과 느슨한 양육태도, 정서적 방임이 확인되었다. 이 두 집단의 비교는 소년범죄 집단에서 규칙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이탈행동만을 보이는 집단과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혼합문제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내재화 문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년범죄 집단에서도 내재화 문제가 동반된 혼합문제 집단에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부모의 과잉반응적인 태도는 혼합문제 집단과 외현화 문제 집단을 구분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에 짜증스럽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과잉반응적 양육이 소년범죄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과잉반응과 함께 느슨한 양육태도 역시 혼합문제 집단과 규칙위반 행동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느슨함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혼합문제 집단이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느슨한 양육태도는 이탈행동을 보이는 자녀들에 대한 부족한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으로 이어져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훈육을 제공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무관심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까지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Nijhof와 Engels(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나치게 관대하고 느슨한 양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부정적 정서를 더 잘 느끼고, 충동성과 공격성도 높아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혼합문제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훈육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자녀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와 짜증 등의 감정을 동반한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은 혼합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Hanson, Hariri와 Williamson(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방임이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경우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Müller, Bertsch, Büla, Herpertz & Buchheim, 2018), 정서적 방임은 소년범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위험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현화 문제 집단과 규칙위반 행동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해주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과잉반응과 부모의 약물남용이 있었다. 이 두 집단의 비교는 공격성의 동반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려준다. 부모의 과잉반응은 규칙위반 행동 집단에 비하여 외현화 문제 집단이, 외현화 문제 집단에 비하여 혼합문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된 변인이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분노와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일수록 자녀가 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약물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약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신경을 덜 쓰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Velleman, Templeton, Reuber, Klein & Moesgen, 2008). 또한, 약물문제가 있는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고 이를 학습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이 아닌 실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은 다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제로 소년법을 위반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실질적인 시사점을 갖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년범죄 집단이 동일한 패턴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패턴의 문제를 보이는 이질적 집단임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집단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이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특징에 따른 전략적인 처우를 한다면 그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기보고의 경우 보고자의 주관적 지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고 특히 범죄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행동을 과소보고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왜곡하여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본인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보고 자료를 함께 수집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본인과 부모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호관찰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울보호관찰소에서만 자료가 수집되어 지역적인 한계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보호

관찰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범죄 집단에 한정적인 것으로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집단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문제행동 수준이 더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CBCL의 기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이나 보호관찰기간 등의 범죄력 정보는 적극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연구대상자의 처분 내용,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횟수 등을 예측변수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범죄력 정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이질성은 이들의 문제행동 수준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이질성이 실제로 이들의 범죄유형이나 범죄의 심각성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거시적인 변인들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심리적인 속성과 같은 미시적인 변인들과 더불어 또래 체계, 지역사회 체계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써 이들의 재범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소년범죄 집단의 추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나 추후 이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험요인들이 실제로 이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주 (2013). 쉼터거주 청소년과 가정거주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부모의 양육행동 및 외현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20(3), 1-30.
- 경찰청 (2011-2016). 범죄통계.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민영, 이진, 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2015). 한국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769-793.
- 김현욱, 김정민 (2015). 청소년이 지각한 교우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 및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1), 292-311.
- 오경자, 김영아 (2015).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주)휴노
-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3.
- 이주영, 이수진, 변지애, 김현경, 정유희, 손외철 (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의 성차: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7(2), 107-136.
- 최효주, 박기환 (2012). MMPI-A 프로파일 양상을 통해 본 청소년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유형과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3(1), 175-199.
- 홍봉선 (2013).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형사정책**, 25, 207-238.
- Balconi, M., & Pagani, S. (2014). Personality correlates (BAS-BIS), self-perception of social ranking, and cortical (alpha frequency band) modulation in peer-group comparison. *Physiology & Behavior*, 133, 207-215.
- Barnow,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1), 24-39.
- Beck, J. E., & Shaw, D. S. (2005). The influence of perinatal complications and environmental adversity on boys'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 35-46

- Brunelle, C., Douglas, R. L., Pihl, R. O., & Stewart, S. H. (2009). Personality and substance use disorders in female offenders: A matched controlle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472-476.
- Burt, S. A. (2009). Are there meaningful etiological differences within antisocial behavior? Results of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2), 163-178.
- Burt, S. A. (2012). How do we optimally conceptualize the heterogeneity within antisocial behavior? An argument for aggressive versus non-aggressive behavioral dimens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4), 263-279.
- Burt, S. A., Donnellan, M. B., McGue, M., & Iacono, W. G. (2011). Age-of-onset or behavioral sub-types? A prospective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characterizing the heterogeneity within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5), 633-644.
- Burt, S. A., & Klump, K. L. (2009). The etiological moderation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antisocial behavior by age.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12(4), 343-350.
- Burt, S. A., & Neiderhiser, J. M. (2009). Aggressive versus nonaggressive antisocial behavior: Distinctive etiological moderation by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164.
- Carlson, S. R., Pritchard, A. A., & Dominelli, R. M. (2013). Externalizing behavior,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and reward and punishment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2), 202-207.
- Chitsabesan, P., Kroll, L., Bailey, S. U. E., Kenning, C., Sneider, S., MacDonald, W. E. N. D. Y., & Theodosiou, L. (2006). Mental health needs of young offenders in custody and in the communi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8(6), 534-540.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Edwards, V. J., & Croft, J. B. (2002).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ersonal alcohol abuse as an adult.

- Addictive Behaviors*, 27, 713-725.
-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Felitti, V. J., & Anda, R. F. (2004).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HMO members attending a primary care clinic. *Child Abuse & Neglect*, 28, 729-737.
- Gray, J. A. (1987).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4), 493-509.
- Grisso, T. (2008). Adolescent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e Future of Children*, 18(2), 143-164.
- Grogan-Kaylor, A. (2005). Corporal punishment and the growth trajectory of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Child Maltreatment*, 10, 283-292.
- Hanson, J. L., Hariri, A. R., & Williamson, D. E. (2015). Blunted ventral striatum development in adolescence reflects emotional neglect and predicts depressive symptoms. *Biological Psychiatry*, 78(9), 598-605.
- Hawkins, J. D., Herrenkohl, T. I.,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et al. (2000).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ildyard, K. L., & Wolfe, D.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 Hipp, J. R., & Bauer, D. J. (2006). Local solutions in the estimation of growth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1(1), 36.
- Hipwell, A. E., & Loeber, R. (2006). Do we know which interventions are effective for disruptive and delinquent girl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3-4), 221-255.
- Krischer, M. K., & Sevecke, K. (2008). Early traumatization and psychopathy in female and male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1(3), 253-262.
- Lahey, B. B., Hart, E. L., Pliszka, S., Applegate, B., & McBurnett, K. (1993).

- Neurophysiological correlate of conduct disorder: A rationale and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2), 141-153.
- Lang, S., Af Klinteberg, B., & Alm, P. O. (2002). Adult psychopathy and violent behavior in males with early neglect and abus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s412), 93-100.
- McKinney, C., Donnelly, R., & Renk, K. (2008). Perceived parenting,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parents, and late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3(2), 66-73.
- Merz, E. L., & Roesch, S. C. (2011).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915-919.
- Meyer, B., Johnson, S. L., & Winters, R. (2001). Responsiveness to threat and incentive in bipolar disorder: Relations of the BIS/BAS scales with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3), 133-143.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
- Moffitt, T. E. (2003).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10-year research review and a research agenda. In B. B. Lahey, T. E. Moffitt, & A. Caspi (Eds.), *Causes of conduct disorder and juvenile delinquency* (pp. 49-75). New York, US: Guilford Press.
- Monahan, K. C., Goldweber, A., & Cauffman, E. (2011). The effects of visitation on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How contact with the outside impacts adjustment on the inside. *Law and Human Behavior*, 35(2), 143-151.
- Mulder, E., Brand, E., Bullens, R., & Van Marle, H. (2011). Risk factors for overall recidivism and severity of recidivism in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1), 118-135.
- Müller, L. E., Bertsch, K., Bülow, K., Herpertz, S. C., & Buchheim, A. (in press).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shapes social dysfunctioning in adults by

- influencing the oxytocin and the attachment system: Results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5).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ijhof, K. S., & Engels, R. C. (2007). Parenting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the expression of homesickness. *Journal of Adolescence*, 30(5), 709-720.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ears, K., & Fisher, P. A. (2005). Developmental,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school-aged foster children: Associations with prior maltreatment and placement history.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6(2), 112-122.
- Prinzle, P., Onghena, P., & Hellinckx, W. (2007). Reexamining the Parenting Scale: Reliability,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of a scale for assessing the discipline practices of mothers and fathers of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24-31.
- Rosenblatt, J. A., Rosenblatt, A., & Biggs, E. E. (2000). Criminal behavior and emotional disorder: Comparing youth served by the mental health and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27(2), 227-237.
- Ryan, E. P., & Redding, R. E. (2004). A review of mood disorders among juvenile offenders. *Psychiatric Services*, 55(12), 1397-1407.
- Stanger, C., Achenbach, T. M., & Verhulst, F. C. (1997). Accelerate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ggressive versus delinquent syndr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1), 43-58.
- Sukhodolsky, D. G., & Ruchkin, V. (2006). 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15(2), 501-516.

- Tackett, J. L., Krueger, R. F., Iacono, W. G., & McGue, M. (2005). Symptom-based subfactors of DSM-defined conduct disorder: Evidence for etiologic distinc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3), 483.
- Takeda, Y. (2000). Aggression in relation to childhood depression: A study of Japanese 3rd-6th graders.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1), 1-11.
- Townsend, E., Walker, D. M., Sargeant, S., Vostanis, P., Hawton, K., Stocker, O., & Sithole, J. (2010).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nterventions relevant for young offenders with mood disorders, anxiety disorders, or self-harm. *Journal of Adolescence, 33*(1), 9-20.
- Ttofi, M. M., Farrington, D. P., Piquero, A. R., Lösel, F., DeLisi, M., & Murray, J. (2016). Intelligenc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offending: A meta-analytic review of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4-18.
- Velleman, R., Templeton, L., Reuber, D., Klein, M., & Moesgen, D. (2008). Domestic abuse experienced by young people living in families with alcohol problems: Results from a cross-european study. *Child Abuse Review, 17*(6), 387-409.

ABSTRACT

Risk factors for heterogeneous behavioral problem patterns in juvenile probationers*

Han, Jiyoung** · Seo, Ahhyun*** · Kim, Hyoun k.**** ·
Oh, Kyungja***** · Lee, Jooyoung*****

The current literature suggests that juvenile probationers may be characterized by heterogeneous behavioral problem patterns and these heterogeneous problems may be associated with different risk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terogeneous patterns of behavioral problems, and to identify risk factors differently associated with the patterns in Korean juvenile probationers. The participants were newly enrolled from July 2016 to March 2017 at Seoul Probation Office. A total of 171 Korean juvenile probationers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behavioral motivational systems. The par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parenting style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LPA identified three distinct profiles: (1) Rule-breaking behavior group, (2) Externalizing problem group, and (3) co-occurring problem group. Our results also showed that different risk factors (e.g., gender, emotional neglect, over-reactivity and laxness parenting style) were differently associated with three heterogeneous behavior groups. These results may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juvenile probationers and may suggest different types of interventions targeting these heterogeneous behavior groups.

Key Words: juvenile probationer, behavioral problem, heterogeneity, risk factor

투고일: 2018. 6. 11, 심사일: 2018. 6. 27, 심사완료일: 2018. 7. 1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A2A03048065).

**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ducation, and Psychology, Dongduk Women's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